

“너무 빨리 기득권된 386세대 시대정신 실종시키는데 앞장”

장하성 교수, 민주정책연구원 특강서 쓴소리

장하성(사진) 고려대 교수는 12일 진보 진영을 겨냥해 “노동 없는 자본이 없듯이 자본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는데 끝없이 반자본만 하며 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후 오랫동안 시대정신이 실종됐고,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못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아마 평등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에 외달게 할 것인가 경제이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때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서 활동했으며, 작년 3월 안 전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내일’ 소장도 그만 두고 정치 활동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하지만,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정책적 조언을 하는 ‘안철수의 사람’으로 꼽힌다. 이날 특강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민병두·윤



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 교수는 보수진영을 향해서는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시장,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200개 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이익 지키기, 전부 자기 소원수리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는 박정희 향수를, 진보는 끝없는 수입품(수입 경제정책)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보수는 자기 이익 지키기를 하고 있고, 진보는 이념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한마디로 불평등”이라며 노동 소득의 분배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안에 움켜쥐고 있어서다”라며 “원래 가계가 임금 일부 저축해서 그걸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가 정상인데 기업이 자기 돈을 움켜쥐고 투자를 안 하면 순환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軍, ‘北 SLBM’ 탐지·대잠수함전 능력 보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감시음향센서·음파탐지기 성능 개량 타격체계 강화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광주일보 12일자 8면)됨에 따라 SLBM 탐지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개념인 ‘4D 개념’에 의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4D개념에 의한 탐지능력과 방어능력,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한미는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유사

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용어로 ‘거부작전구역’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수중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수상, 수중 타격체계(킬 체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수중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수중 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은 반영하지 않아 북한 SLBM 위협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탄도탄 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은 750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 6개가 한반도를 고정해서 감시하고 있다”면서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214급(1천800t급) 잠수함도 북한 잠수함을 근접 감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SLBM 위협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 인터넷진흥원 신청사 착공식.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사 착공식이 12일 오후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열린 가운데 김필식 동신대총장(왼쪽 두 번째부터),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양복완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 국장 등 참석자들이 신청사 착공을 알리는 발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나선다

행자부,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불편을 막기 위해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제적 안내받고,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도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용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

고, 맞춤형서비스 및 시스템 연계통합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복지부·고용부·중기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립하는 정보화전략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12일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정부의 제도나 지원정책을 알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한 번의 방문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럽 4개사 360억 투자 삼포지구에 합작법인

이낙연 지사 투자유치 성과 ... ‘자동차 튜닝벨리’ 탄력

이낙연 전남지사는 11일 독일 뮌헨 힐튼호텔에서 국내 차 부품 3개사 및 세계 굴지의 독일·네덜란드 튜닝기업 4개사가 360억원을 투자해 3개 합작법인을 영암 기업도시 삼포지구에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 창원 소재 (주)경한코리아는 독일 겐발라(Gemballa)사 및 네덜란드 JRZ사와 합작으로 184억원을 투자해 휠(바퀴), 서스펜션(바퀴의 충격 흡수장치), 속업소버(스프링의 상하운동에 의한 피로를 줄여주기 위한 장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대구 소재 (주)삼보모터스는 독일 SKN사와 124억원을 투자해 엔진, 브레이크, 배기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성남 소재 (주)아데나는 M-Sys사



와 52억원을 투자해 자동차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합작법인을 각각 설립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독일 등 세계 굴지의 튜닝기업들이 보유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삼포지구에 고성능 튜닝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들 합작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망한 튜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2020년 4조원)과 중국(2020년 30조원) 등 동북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역점적

로 추진 중인 ‘삼포 자동차 튜닝벨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포 튜닝벨리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세계 최고의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독일의 티유브이슈드사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연구원이 영암 F1 경주장 및 장비를 활용해 튜닝부품을 시험·평가할 경우 티유브이슈드사에서 데이터 확인 후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 지사는 “한국에서 고성능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한국과 FTA가 체결된 중국 시장에서 튜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협약 기업이 동북아 튜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헌재소장 5·18묘지 첫 참배

박한철 오늘 광주 방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헌법재판소는 박소장이 13일 오전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하고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 상담실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이 국립 5·18를 참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 수호를 위한 상징적인 장소를 찾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박소장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운영중인 광주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헌법재판소 지역 상담실을 찾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박소장은 오후에는 광주시장 등 지역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